

상록탑

“요즘 애들은 정치를 모른다”는 당신에게

“난 드루킹이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 그냥 개인이잖아, 그 사람이 댓글을 조작하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은 사회 여론이 개인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드루킹은 대선 전부터 9만여 개의 댓글을 쓰며 여론을 조작했고, 현직 여당원과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인사 청탁, 돈거래와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한낱 ‘개인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모든 말을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리다 문득 힘이 빠졌다. 이 사건 하나를 아는 게 무슨 대수냐 싶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들을 단편적으로 접한다. <택시 운전사>는 알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모른다. 누군가 오래 전 청계천에서 분신자살했다는 말을 어렵듯이 들어봤지만, 그가 전태일 열사이며 무엇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대학에 오기 직전까지 정치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대학에 입학하니 너무 바빠 신문을 외면한 채 허겁지겁 뛰쳐나오기 일쑤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커피를 뿔뿔라 정신없다. 이런 내게 세상 돌아



유현빈
대학취재부 부장

“청년 탓은 이제 그만, 살아있는 정치 교육 필요해”

가는 공부는 사치다. 몇몇 정치인은 이런 20대를 두고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자신의 이익에는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의미의 ‘20대 개새끼론’을 부르짖으며 핏대를 세웠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나는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지역 사회의 정치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어떤 이유에서 진보이고 보수인지 배운 적 없다. 과연 청년이 어떤 경로로 정치를 배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정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려 하거나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 주

기 위해서는 노력한적 없으면서, 청년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 장본인들이 저렇게 말한다. 과연 누가 개새끼인가?

미국의 기업가 제임스 클라크(James H. Clark)는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할 때다. ‘재네는 원래 관심 없어’, ‘20대는 불만은 많으면서 투표는 안 해’ 등의 말로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의 주를 이루는 386세대가 20대에 피, 땀, 눈물로 민주주의의 터를 잡았던 것처럼, 지금의 20대와 10대도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현 국회의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임기가 끝날 때쯤엔 환갑잔치를 목전에 둔 나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더 많은 젊은 피가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살아있는’ 정치에 대해 한살이라도 더 어릴 때 배워야 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는 법을 익혀야 하며,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한다.

더 나은 한국을 위해 한국의 정치 교육은 하루 빨리 바뀌어야만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을 탓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입장 등을 정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사설

시장은 행정가 역할 망각하지 말아야

대한민국 제7회 지방선거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본교가 위치한 서울시 역시 8명의 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각의 주요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듣고 싶다면 의문이 든다. 전반적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 시장이자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후보부터 그러하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관광 산업과 MICE 사업의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애초에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됐는지 의문이다. 1년 전 사드(THAAD)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을 때 한국의 관광 산업은 백없이 흔들렸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은 취약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관광 산업의 수혜 역시 대부분 주요 관광지에게 가게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집중된 만큼 청년의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군이기도 하다. 국제회의 개최 등에 의존하는 MICE 산업 역시 관광사업과 다를 바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국제 경제 및 외교 관계 때문에 산업 상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들도 많다. 단적인 예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안들은 모두 소모적인 재정 사용을 전제로 한다. 김 후보는 디젤 차량을 전기 및 수소 차량으로, 난방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노인 시설에 모두 비치하고 아파트 및 빌딩 하부에는 모두

공원을 조성하며 광화문 광장 역시 전부 숲으로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원 조성 예산은 평균 30억~60억에 달하며, 기존 사업들을 참고했을 때 고속도로 지하화 예산은 한 구간당 적어도 ‘조’ 단위라는 점을 김 후보가 염두에 두었는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문수 후보에 이어 여론조사 3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블록체인’ 기술과 행정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혁신이 곧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건강복지카드를 만들어 건강정보, 진료기록, 연금정보, 복지혜택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 자신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공약 속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 파동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며 각종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중앙정부와 정면 대치되는 정책이 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역시 부재하다.

정치인이 큰 틀의 이상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행정가는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현재 정치인인가 비정치인인가와 무관하게 그들은 시장이 되는 순간 행정가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행정가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자질은 듣기 좋은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아닌 주민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 공약 실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 칼럼

장애인을 배제하는 언어인가요

“존재를 지우는 사회에서 소수자를 사회화해야 한다.” 누군가 반응했다. “가시화라는 말은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는 용어니 대체를 찾아요.” 다른 이는 “보고 듣는다는 말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투쟁이 있다. 추상적 고민 속에서 어느 지점을 바꿔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가시화라는 단어는 시각장애인 배제 단어일까. 감각을 묘사하는 은유 표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 지인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시화/비가시화’라는 단어가 시각장애인을 배제하기 때문에 대체한다면 시각적 표현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걸까요?”

수전 웹툰의 「거부당한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모든 감각과 기능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 체계에 많은 제한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또한 청각



김미현
커미.15

“감각에 다양한 차이 있어 배제의 언어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장애의 경우엔 시각적 감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시각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하는 건,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남았다. 차이의 영역이니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기울었다.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감각에 대한 다양한 차이가 있다. 차이에 대한 언어를 지우는 건 오히려 서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 장애에 따른 경험과, 현재 가지고 있는 감각에 따른 정체성을 말이다.

따라서 어떤 감각 표현에 대해 모두 대체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도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과, 언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결론이다.

‘가시화’라는 말은 현상을 드러낸다는 은유로 사용된다. 대책 단어로는 ‘비가시화’가 쓰이고 있다. 시각장애인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도 해당 은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감각의 언어를 공유하는 것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은유적 표현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능적 은유와 불가능적 은유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 관찰음과 불편함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해당 고민을 공유하고 추상적 고민 속에서 구체성을 잡아간다. 또한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언어사용변경 자체가 궁극적 문제 해결은 아니다. 문제는 항상 연결되어있으니 항상 다른 고민들도 같이하자. 아자!

여론광장

우리에게 왜 취미가 없을까

일본어 회화 수업에서 새로운 학생이 오면 늘 자기소개를 한다. 벌써 같은 자기소개를 30번도 넘게 했지만 매번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취미가 무엇인가이다. 사실 이 질문은 초등학교 이후 늘 받던 질문이고 한번도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야 취미가 없으니까. 과연 나만 그런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면 결국 독서, 음악감상, 영화 감상 이외의 취미를 가진 사람은 소수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여행에서 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취미 관련 서적과 잡지들을 보면서 어쩐지 부러워진다. 요리, 정원 가꾸기, 자전거, 운동, 사진, 악기, 일러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잡지가 수두룩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힐링이나 자존감에 관련된 책은 많이 나오지만 취미 생활에 대한 책들은 확실히 메이저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 돈, 의지가 한꺼번에 요구된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중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나의 경우 이런저런 분야에 잠깐씩 관심을 가지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컬러링북이 유행할 때 잔뜩 사놓고 그림 하나 완성하지 않았고 글이라도 써볼까 다운 받아놓은 모바일 앱은 한번 쓰고 방치돼 있다. 물론 나에게도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다.

일단 시간이 없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피곤에 찌들어 침대에 쓰러지는 것이 일상이다. 항상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다. 둘째로 세상에는 쉽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다. 유튜브에서 4년전에 올라온 박병이론 클럽을 보는 것이나 과금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누워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이 많다. 머리 쓸 필요도 없이 단순하게 재미있다. 셋째로 높은 수준을 바란다. 트위터나 조아라 등에서 자신의 글이나 그림을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 꽤나 열정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는 부류이다. 그것을 소비하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좀 못해도 된다.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든 유튜브보다 재미가 없다. 시간은 당연히 내기가 싫고,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다시 힘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분명 재미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지금 보면 앞뒤도 안 맞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잔뜩 써 놓았지만 정말 매일매일 즐기면서 쓰고 그렸던 기억이 있다. 요즘의 우리에게 그런 이유도 없고 평가자도 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

황지현(건축공학·16)

만평 우아현 만평기자 wah97@ewhain.net



금주의 책



세계문학 브런치 - 정시문 지음, 서울: 부키, 2016. 이 책은 서구 문학의 기본이자 표준에 해당하는 고전 중 세계문학들을 몇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저자는 복잡한 해설이나 평가, 의미분석을 벗어나 작품 속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전개를 설명하며 작품 자체가 어떤 특징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라는 것을 느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808.8 269시]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인소의 법칙	유한려	ttbook:디앤씨미디어	2015-
2	도쿠가와 이에아사	산강장팔	솔	2000-2001
3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시공사	2012
4	(정령왕) 엘리네스: 이화인 판타지 장편소설 / 개정판	이화인	드림북스:삼양출판사	2011-
5	(2017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길벗 R&D	길벗	2016

0425~0524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